

시의회 올림픽유치 지원
특 위 업 무 보 고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서울시 2032 올림픽 유치 업무보고

2021. 6. 4(금)

관 광 체 육 국

(올림 픽 추 진 과)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2032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를 위한 추진 현황 및 IOC 미래유치위원회 지속협의 심화 등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립니다

I 추진경과 및 유치환경 변화

□ 범정부 올림픽 유치 협력 및 IOC 지속협의 개시(2018~2020)

2032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제안

- ◆ 남북 정상 9·19 평양공동선언('18.9.19)
 -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 ◆ IOC 위원장-남북 체육장관(도종환 문체부장관, 김일국 체육상) 3자회의('19.2.15)
 -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남북 공동유치 의향 발표를 “역사적 제안”이라고 호평

○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국내 유치도시 결정을 위한 법정절차 이행

- 대한체육회 국내 유치도시로 ‘서울’ 선정('19.2.11) ※ 경쟁도시 부산
- 「2032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 시의회 가결('19.9.6)
- 서울-평양 공동유치·개최 추진계획 문체부('19.11.1), 기재부('20.2.20) 승인

○ 올림픽 유치를 위한 범정부 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

- 문체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대한체육회 등 ‘유치추진협의체’ 운영('20.1월~)
- 서울시-민주평통·市체육회 MOU 체결('20.5.27), 국민적 지지형성 협력사업 기반 마련

○ IOC 미래유치위원회 「지속협의」 개시 및 후속 협의 진행

- 서울시를 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y)로 인정하고 ‘지속협의’ 절차(Continuous Dialogue) 개시 통보('20.1.30)
- 미래유치위원회와 추진현황 공유 및 심사절차 로드맵 협의 시작('20.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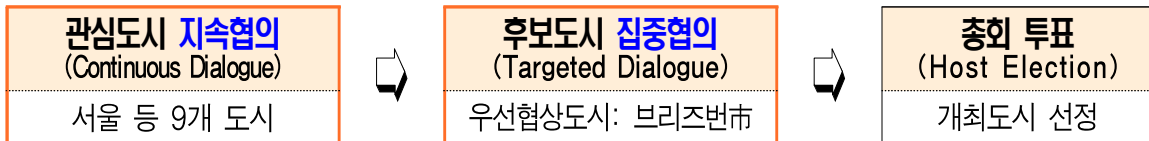
□ 2021년 유치환경 변화

○ ‘서울-평양 공동개최’ 실현가능성에 대한 IOC의 우려 표면화

- 서울-평양 공동유치 리스크 요인 (IOC 미래유치위원회 → 대한체육회 서한('21.2.25))
북한과의 수차례 접촉시도 불발로 판단컨대 북한이 공동유치를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매우 큼. 한국의 지속적인 유치 관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대화를 이어가길 희망

○ 호주 브리즈번 2032 올림픽 ‘후보도시’로 선정, 집중협의 진입('21.2.25)

– 빠르면 도쿄올림픽 전(IOC 총회 : 7.20.~21.) 또는 늦어도 내년까지 개최지 선정 전망



▪ Brisbane 집중협의 승격 이유

올림픽 혁신안인 IOC Agenda 2020에 부합, 기존 올림픽시설 80~90%이상 활용, 팬데믹 하 우수한 기후 여건, 도시 장기발전방향과의 높은 정합성, 압도적인 국내 지지여론 등

※ 주요 관심도시 동향 : 2032 올림픽 유치 노력 지속(카타르 도하), 2036 올림픽 유치도 고려(독일 베를린, 헝가리 부다페스트), 2040 올림픽 유치로 선회(인도 델라-뭄바이)

※ 선정절차 : [기존 평가 후 ‘복수 후보도시’ 총회투표(로비 폐해) ➡ [신규 미래유치위원회 2단계 협의 후 ‘단수 후보도시’ 총회투표(위원장 영향력 커짐), '19년 6월 도입 후 2024 청소년동계, 2032 하계올림픽 적용

〈 올림픽 개최지 선정 주요단계 〉

단계별 특징	주관
1 올림픽 유치 관심도시 지속협의(Continuous Dialogue) ▪ 관심도시(Interested Parties)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 집행위원회 보고 ▪ ‘ 타당성조사(Assessment) ’ ➡ 집행위원회에 ‘후보도시 추천’ ▪ ‘특정 올림픽 전략 프레임 및 후보도시 승인 ’ (사유 공개)	미래유치위 집행위원회
2 집행위 승인을 받은 후보도시 집중협의(Targeted Dialogue) ▪ 기본계획 심사(Evaluation) , 실사(필요시) 및 결과보고 (사유 공개) ▪ 부적격 판단 시 집행위원회는 보완 지시, ‘지속적 협의’ 단계 다시 진행 ▪ 후보도시 총회 제출	미래유치위 집행위원회
3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IOC 총회투표	총회
4 공동작업 (Co-construction) : 올림픽 개최 종합계획 공동 수립	미래유치위

II

최근 주요 추진실적

□ IOC 미래유치위원회와 지속협의 추진

- 호주 브리즈번 ‘우선협상도시’ 선정(’21.2.25)에 대해 즉각적인 유감표명
 -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 여건 마련”이라는 정부 정책기조 견지하여
 - 유감 표명 서한 발송(3.4[시장권한 대행·대한체육회장], 3.5[문체부장관])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우선협상도시 결정(’21.2.25)으로 2032 올림픽 개최지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서울시에게 아직 기회가 있음” 확인(’21.2.28 정의용 외교부장관 통화)

- 2032 올림픽 유치제안서 제출 및 IOC 협의 답변서 준비
 - 올림픽 비전과 5대 분야별 콘셉트 및 시설 마스터플랜 등을 담은 남북 공동 개최 유치제안서 제출(’21.4.1)
 - 집중협의 대비 IOC 제출용 분야별 유치계획서(6개 분야·93개 항목) 작성중

비전

- Beyond the Line, Toward the Future
경계와 한계를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콘셉트

- (+) 남북이 연결되고, 동서가 화합해 평화를 이루는 올림픽
- (-)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파괴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올림픽
- (÷) 서울-평양 공동 개최로 모두가 함께하는 올림픽
- (X) 첨단 기술과 K-컬처를 통해 세계가 향유하는 올림픽
- (=) 연대와 포용, 선수인권이 존중되는 올림픽

- 시장친서, 화상회의 등 2032 올림픽 유치의지 직접 피력 계기 마련
 - “앞서 제출한 2032 올림픽 유치제안서 대로 유치에 최선의 노력 다 할 것” 표명한 시장친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전달(’21.4.23)
 - ➔ “서울시 명예시민으로서 시장 당선 축하하며 향후 서울 방문 시 면담희망” 회신(’21.4.27)
 - IOC 미래유치위원회와 최초 화상회의 개최(’21.6.1/DDP)

〈 IOC 미래유치위원회 화상회의 결과 〉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6. 1(화) 16시/ '서울온' 화상회의 스튜디오(DDP 살림터 2층)
- 참석자 : 총 16명 (서울-스위스 로잔 IOC본부 연결)
 - [IOC] Kristin Kloster Aasen 미래유치위원장, Jacqueline Barrett 미래올림픽유치과장 등
 - [우리측] 서울시장, 유승민 IOC 선수위원 및 관계 기관 국장(시, 문체부, 외교부, 통일부[과장], 대한체육회)
- 진행일정 : 참석자 소개 등(12'), 유치제안서 발표(28') 및 질의응답(17')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6:00 ~ 16:05	5' • 진행순서 안내 및 참석자 소개	서울시 IOC위원 (유승민)
16:05 ~ 16:09	4' • 인사말씀 (각 1~3분) (시장, 유승민 IOC위원, IOC 미래유치위원장)	
16:09 ~ 16:12	3' • 올림픽 홍보영상 상영	
16:12 ~ 16:40	28' • 유치 제안서 발표 및 논의	
16:40 ~ 16:57	17' • 질의응답 및 향후 일정 논의	부처별 국장
16:57 ~ 17:00	3' • 폐회	

□ 주요 논의사항

- (IOC) 서울시 유치제안서에 감명, 향후 지속 발전시킬 수 있기 바람
 - 스포츠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는 비전은 올림픽 이념에 부합
 - 콘셉트, 최첨단 IT기술 접목, 기존시설 활용 등의 내용이 매우 인상적임
 -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위해 예외적으로 호주 브리즈번을 2032 올림픽 우선협상도시로 조기 선정
 - 서울시 비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발전시키기를 희망
- (서울시) 인류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올림픽 유치에 최선의 노력 다할 것
 - 유치제안서 대한 IOC의 깊은 이해에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됨
 - 불안정한 남북관계야말로 남북공동개최의 의의를 높이는 것. 계속 관심 바람
 - 관심도시와의 협의 진전 위해 도쿄올림픽 전 2032 개최지가 결정되지 않기를 바람

□ 범정부 협력을 통한 IOC 대응 및 북한 리스크 해소 노력

○ 문체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대한체육회 범정부 공조 활성화

– 범정부 ‘유치추진협의회’ 장관·차관·국장급 전략 회의(총 8회) 진행

- ▶ 관계부처 장관급(’21.3.22)·국장급(’21.2.18/3.24/5.7) 연석회의 진행
- ▶ 서울시장-문체부장관-대한체육회장 간담회(5.13) 개최

- 도쿄올림픽 등을 계기로 IOC 위원장에게 적극적인 유치의지 표명 피력 필요
- 6월 문체부,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대한체육회 등 관계 부처 장관급 회의 개최

○ 북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 최소화 및 IOC 우려 해소

- 통일부→ **리용선 국제태권도연맹 명예총재**(북한 NOC 부회장)에게 ‘**서울시 유치제안서**’ 전달(’21.4.5~4.15)



북한올림픽위원회에서 **서울-평양 공동개최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IOC에 표명하도록 정부부처의 지속적인 노력 필요**

□ 민·관자원을 활용한 올림픽 유치 공감대 형성 및 정책대안 마련

○ 국민 관심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통한 올림픽 유치 붐 조성

- 민주평통과 ‘2032 올림픽 공감 컨퍼런스’ 개최(’20.11.4/ ’21.5.28)
- 1988 서울올림픽의 의미를 재조명한 KBS 다큐멘터리 방영(’21.2.20)
- IOC 위원 등 국외용 영문 홍보동영상 제작(’21.5)

○ 정부, 대한체육회, 재계, 관계 전문가 참여 자문회의 개최

(최근) 자문회의 개최 개요

◆ 문체부, 대한체육회, 민간전문가 자문회의(4.16)

- 시장 친서, IOC 위원장 면담 및 화상회의 연계 추진안 마련

◆ 삼성전자 자문회의(4.19)

- ‘**올림픽 파트너**’ 영향력* 활용하여 IOC 위원장 방한 시 또는 도쿄올림픽 기간 중 현지에서 2032 올림픽 개최지 조기 확정 보류 협조 요청

* 올림픽 후원기업(TOP)은 후원금액에 따라 공식파트너, 공식스폰서, 공식서포터, 기부사로 구분. 삼성전자(1998~2028)는 코카콜라, 도요타 등과 더불어 ‘공식파트너’(14개, 4년마다 1억불 후원)

Ⅲ

향후 추진과제

- ◆ IOC 총회에서 2032 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기 전까지 '2032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를 위해 최대 노력 경주

□ IOC 미래유치위원회 지속협의 심화

- **화상회의에서 제기된 이슈, 유치제안서에 구체화 및 지적사항 보완**
 - 올림픽 아젠다 2020+5의 세부내용 참고, 인권·연대 등 세부내용 보완
 - 패럴림픽의 비전과 추진계획에 대해 올림픽과 차별 없는 진행안 개발
 - IOC에게 생소한 DMZ, 평양 관련 '올림픽 유산(레거시)'에 대해 후속 논의 필요
 - 향후 기후 때문에 참가하지 못하는 나라가 없도록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
- **지속협의 심화 매개로 올림픽 개최지 결정까지 충분한 시간 확보**
 - 2032 올림픽 유치에 관심 있는 도시들과 충분한 논의 필요성을 설득
 - ※ 현재까지 2032 올림픽 개최지 확정에 대한 구체적 일정이 없음 확인(6.1)

□ 제25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 서울 개최

〈 제25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 개요 〉

- ◆ **회의명** : 제25차 ANOC총회 ※ ANOC(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s)
- ◆ **기간/장소** : '21 10.22.(금)~10.28.(목) / 코엑스 컨벤션센터 등
- ◆ **참가규모** : 206개국 1,500여명(호스바흐 IOC 위원장, 집행위원 IOC 위원, 각국 NOC 대표 등)
- ◆ **주요내용** : 총회, 집행위원회·분과위원회 회의, 대륙별 회의 등
- ◆ **주최/주관** :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 서울특별시, 대한체육회



- IOC위원 및 관계자 대상으로 '올림픽 개최도시, 서울'의 역량 각인
 - IOC 위원장 면담, 총회 기조연설 등을 통해 유치의지 피력 및 스포츠 외교력 발휘

붙임①

하계올림픽 역대 개최지(1896~2028) : 총회투표로 결정(1936년~)

1회~12회		13회~24회		25회~34회	
1회	1896년 아테네	13회	1944 [취소] 2차 대전 (후보도시2→런던勝)	25회	1992년 바르셀로나 (후보도시6, <u>브리즈벤 3차 투표 까지 감</u>)
2회	1900년 파리	14회	1948년 런던	26회	1996년 애틀랜타 (후보도시6, 5차 투표)
3회	1904년 세인트루이스	15회	1952년 헬싱키 핀란드 (후보도시2)	27회	2000년 시드니 (후보도시5, 4차 투표)
4회	1908년 런던	16회	1956년 멜버른 호주 (후보도시4, 4차 투표)	28회	2004년 아테네 (후보도시5, 4차 투표)
5회	1912년 스톡홀름 스웨덴	17회	1960년 로마 (후보도시7, 3차 투표)	29회	2008년 베이징 (후보도시5, 2차 투표)
6회	1916년 [취소] 1차 대전	18회	1964년 도쿄 (후보도시4)	30회	2012년 런던 (후보도시5, 4차 투표)
7회	1920년 앤트워프 벨기에	19회	1968년 멕시코시티 (후보도시4)	31회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 (후보도시4, 3차 투표)
8회	1924년 파리 (8회)	20회	1972년 뮌헨 (후보도시4, 2차 투표)	32회	2020년 도쿄 (후보도시3, 2차 투표)
9회	1928년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21회	1976년 몬트리올 (후보도시3, 2차 투표)	33회	2024년 파리 (후보도시2→LA 2028 개최)
10회	1932년 로스앤젤레스	22회	1980년 모스크바 (후보도시2)	34회	2028년 로스앤젤레스
11회	1936년 베를린 (후보도시2)	23회	1984년 로스앤젤레스	35회	2032 미정
12회	1940년 [취소] 2차 대전 (후보도시2→도쿄勝→헬싱키) ※ 일본이 중일전쟁으로 개최권을 행사에 넘겼으나 2차 대전으로 결국 취소	24회	1988년 서울 (나고야 등 후보도시2)	36회	2036 미정

★ (총회투표) 올림픽 개최지 선정방식(Instant-runoff voting) : 1936년부터 적용

1. 여러 개최지 후보 대상 1차 투표
2. 1차 투표에서 한 도시가 과반수 득표하면 해당 도시를 선정. 누구도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마지막 순위의 도시를 후보에서 제거. 남은 후보로 2차 투표
3. 과반수 득표도시 나올 때까지 반복
4. 남은 두 후보간 결선 투표 → 결선투표 염두 한 IOC 전체 위원별 전방위 로비 폐해 초래

주요 추진 내용	
아시아태평양	<p>[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시 (인구: 228만, 호주에서 세 번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2028년 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2016년부터 준비하고 있었음 (파리, LA동시 선정으로 무산) - 바호 IOC위원장의 최측근으로 IOC 부위원장이자 호주 NOC(AOC)의 회장인 '존 코츠'의 막강한 영향력 - 오랜 기간 준비한 자료와 여러번에 걸친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2032올림픽 유치에 가장 앞선 평가받음 - IOC가 호주를 우선협상대상자(preferred host)로 발표 집중협의(Targeted Dialogue)단계를 시작했음('21.2.25) - 도쿄올림픽('21.7월)에서 최종 개최지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중
	<p>[인도-델리/뭄바이] 2040년 올림픽 유치로 선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억 인구의 거대 시장으로 IOC에서 최고 가치로 인정받았었음 - 인도 NOC 회장, Narinder Batra는 2032 올림픽 대회 유치 경쟁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20. 5월) - 파키스탄- 중국과의 국경분쟁, 코로나 19로 경제위기 등 악재에 직면한 상황 - IOC가 호주를 선호 호스트(preferred host)로 발표한 이후, 2040년 올림픽에 도전하는 것을 검토 중
	<p>[인도네시아-자카르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C 위원장과 '2032 유치관련 회담진행('20. 10월 초) - 조코위 대통령, 올림픽 유치를 위한 예산 확보 등 본격적 준비에 들어갈 것 지시('20. 11월) - IOC미래유치위원회와 화상으로 Continuous Dialogue 진행('21. 2월)
	<p>[중국-상하이/ 청두-충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이(중국의 경제 중심지이자 ^{1step}단일도시 기준 최다 인구 보유), 청두-충칭이 2032올림픽 참가가능성 시사 -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제전망 불투명 / 홍콩 사태, 코로나 19의 발원지 등 악재로 국제적 비난과 이미지 실추 - 너무 많은 스포츠이벤트 개최로 국제무대에서 식상
중동	<p>[카타르-도하] 2032 하계올림픽 유치 노력 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하(Doha)는 2022 FIFA 월드컵 개최지이며, 2030 아시안 대회를 개최지로 선정된 스포츠의 도시 - 작년에 2032 올림픽 유치 의향서 공식 제출 ('20.7.27.) - 호주를 선호 호스트로 선택했음에도 2032 올림픽 유치에 대한 지속적인 대회를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
유럽	<p>[독일-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2036년 유치도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설만으로도 경기의 80% 개최가능. 그러나 독일 내 부정적 여론 항시 존재, 주민투표제도로 번번이 무산됨 - 독일(베를린)과 이스라엘(텔아비브)이 공동유치하는 안도 검토 중(2차 대전에 대한 화해)
	<p>[헝가리-부다페스트] 2036년 유치도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 전 국민투표를 실시하라는 압력을 받아 2024년 유치를 취소한 바 있음 -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p>[스페인-마드리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16, '20을 모두 노렸으나 실패, 새로운 체육장관 취임 후 재추진 - 코로나 19로 심각한 경제위기 직면, 작년 2분기 성장률 -21%
동구	<p>[우크라이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및 스포츠 장관(Vadym Huttsait) 2030(동계), 2032(하계) 올림픽 유치에 나설 것을 고려 중 표명